# 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

2021. 6.

한국경영자총협회
KOREA ENTERPRISES FEDERATION

# < 요 약 >

□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는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하여 5.24~6.2(10일간)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「국민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」 실시(95% 신뢰수준 ±3.1%p)

## <건강보험료 부담>

①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'부담된다' 62.6%, '보통이다' 31.4%, '부담되지 않는다' 6.0%로 나타남.

②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(2017~2021)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(12.1%)에 대해 응답자의 73.7%가 '높다'고 평가

* '매우 높다' 29.4%, '다소 높다' 44.3%, '보통이다' 24.3%, '다소 낮다' 1.90%, '매우 낮다' 0.1%

③ 2022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, 응답자의 68.0%가 '인하 또는 동결'을 요구한 반면,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운영 목표인 '3% 이상 인상'을 선호한 응답자는 1.2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.

* **[인하 또는 동결]** '인하' 34.5%, '동결' 33.5%, **[인상]** '1% 미만' 16.6%, '1~2% 미만' 10.2%, '2~3% 미만' 4.0%, '3% 이상' 1.2%

## <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>

④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.5%가 '악화' 우려

⑤ 건강보험료율의 지속 인상을 고려한 보험료율 법정 상한(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의 8%) 개정에 대해 '반대' 55.1%, '찬성' 14.2%로 나타남.

-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'찬성'(14.2%)한 경우에도 수용가능한 수준은 '8~9% 미만'이 40.1%로 가장 높게 조사됨.

* '8~9% 미만' 40.1%, '9~10% 미만' 32.4%, '10~11% 미만' 20.4%, '11~12% 미만' 2.8%, '12% 이상' 4.2%

⑥ **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**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과 건강보험료율 모두 '현 수준 유지'(각각 43.5%, 39.8%)를 가장 선호

-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'현 수준 유지' 43.5%, '중증질환 위주 확대' 30.5% 순이었으며,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'전면 확대'는 12.3%에 불과

-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서는 '현 수준 유지' 39.8%, '인하' 37.5% 순이었으며,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운영 기조인 '인상'은 19.5%로 나타남.

**<상병수당제도 도입>**

⑦ 정부가 논의 중인 **상병수당 도입**에 대해서는 오차범위(±3.1%) 내에서 '반대' 37.3%, '찬성' 36.1%로 나타났으나, **'건강보험료 인상'을 통한 상병수당 실시**에 대해서는 '반대' 54.8%, '찬성' 21.9%로 조사됨.

* [제도 도입] '반대' 37.3%, '찬성' 36.1%, '잘 모르겠다' 26.6%
['건강보험료 인상'을 통한 제도 도입] '반대' 54.8%, '찬성' 21.9%, '잘 모르겠다' 23.3%

## 1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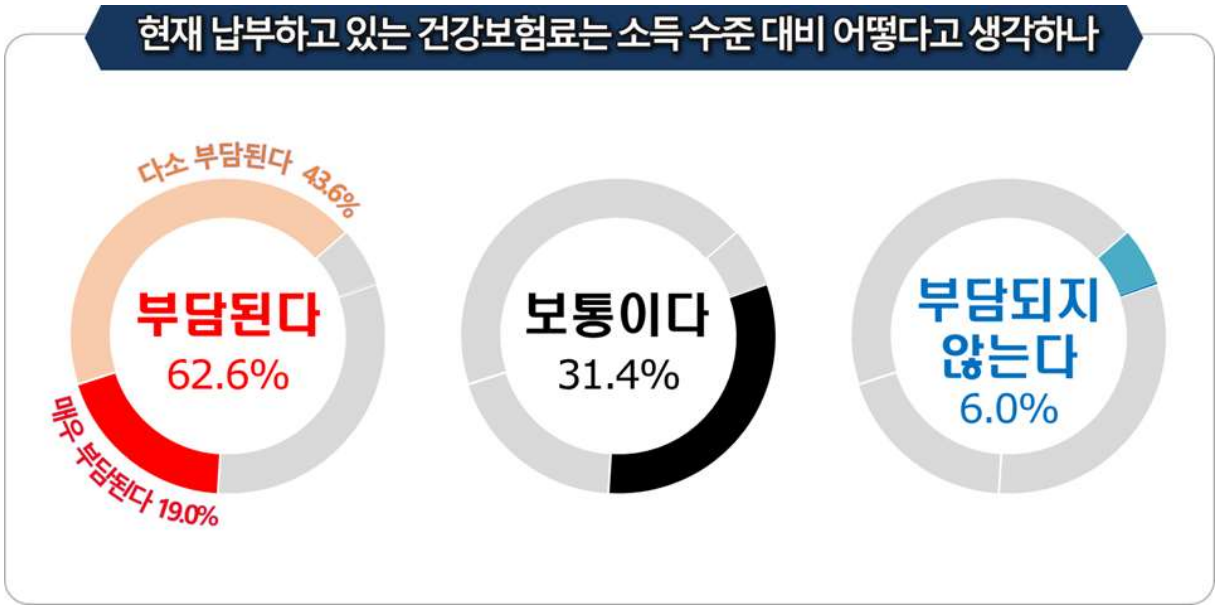
▸ 부담된다 62.6% > 보통이다 31.4% > 부담되지 않는다 6.0%

□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설문조사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, 5.24~6.2(10일간) 전국만 20세 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「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」를 실시한 결과, 응답자의 62.6%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'부담된다'고 답변

○ 현재 소득 대비 본인 또는 부양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'매우 부담된다' 19.0%, '다소 부담된다' 43.6%로, 전체 응답자의 62.6%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.

○ 그 외 '보통이다'는 응답은 31.4%였으며, '별로 부담되지 않는다' 5.8%와 '전혀 부담되지 않는다' 0.2% 등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6.0%로 집계됨.

[그림 1]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



□ (가입유형별)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대비 '부담된다'는 응답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63.9%, 지역가입자의 경우 68.3%로 나타남.

○ 직장가입자의 경우 '부담된다' 63.9%, '보통이다' 29.3%, '부담되지 않는다' 6.8%

* '매우 부담된다' 15.3%, '다소 부담된다' 48.5%, '보통이다' 29.3%, '별로 부담되지 않는다' 6.6%, '전혀 부담되지 않는다' 0.2%

○ 지역가입자의 경우 '부담된다' 68.3%, '보통이다' 28.2%, '부담되지 않는다' 3.6%

* '매우 부담된다' 29.4%, '다소 부담된다' 38.8%, '보통이다' 28.2%, '별로 부담되지 않는다' 3.6%, '전혀 부담되지 않는다' 0.0%

○ 한편,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'부담된다' 49.4%, '보통이다' 42.3%, '부담되지 않는다' 8.3%

* '매우 부담된다' 10.7%, '다소 부담된다' 38.7%, '보통이다' 42.3%, '별로 부담되지 않는다' 7.7%, '전혀 부담되지 않는다' 0.6%

**<표 1>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**

(단위 : %)

| 구분 | | 부담된다 | 매우 부담 | 다소 부담 | 보통이다 | 부담되지 않는다 | 별로 부담 안됨 | 전혀 부담 안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62.6 | 19.0 | 43.6 | 31.4 | 6.0 | 5.8 | 0.2 |
| 가입유형 | 직장가입자 | 63.9 | 15.3 | 48.5 | 29.3 | 6.8 | 6.6 | 0.2 |
| | 지역가입자 | 68.3 | 29.4 | 38.8 | 28.2 | 3.6 | 3.6 | - |
| | 피부양자 | 49.4 | 10.7 | 38.7 | 42.3 | 8.3 | 7.7 | 0.6 |

## 2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평가

▸ 높다 73.7% > 보통이다 24.3% > 낮다 2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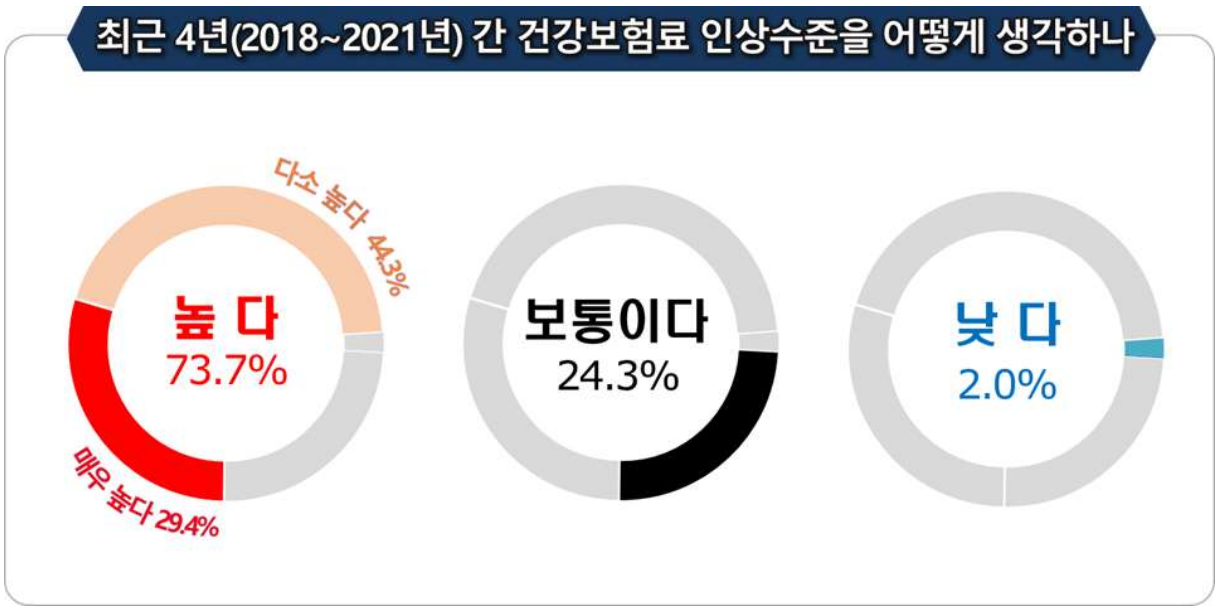
□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(2018~2021)간 건강보험료율* 누적인상률(12.1%)에 대해 응답자의 73.7%가 '높다'고 평가

* 건강보험료율 : '17년 6.12% → '21년 6.86%, 12.1% 인상

○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'매우 높다' 29.4%, '다소 높다' 44.3%로, 전체 응답자의 73.7%가 '높다'고 인식

○ 그 외 '보통이다'는 응답은 24.3%였으며, '다소 낮다' 1.90%, '매우 낮다' 0.1% 등 '낮다'는 답변은 2.0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**[그림 2]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 평가**




□ (가입유형별) 최근 4년(2018~2021)간 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'높다'는 응답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5.3%, 지역가입자의 경우 76.4%로 나타남.

○ 직장가입자의 경우 ‘높다’ 75.3%, ‘보통이다’ 23.3%, ‘낮다’ 1.4%

* ‘매우 높다’ 27.6%, ‘다소 높다’ 47.8%, ‘보통이다’ 23.3%, ‘다소 낮다’ 1.2%, ‘매우 낮다’ 0.2%

○ 지역가입자의 경우 ‘높다’ 76.4%, ‘보통이다’ 20.4%, ‘낮다’ 3.2%

* ‘매우 높다’ 37.5%, ‘다소 높다’ 38.8%, ‘보통이다’ 20.4%, ‘다소 낮다’ 3.2%, ‘매우 낮다’ 0.0%

○ 한편,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‘높다’ 65.5%, ‘보통이다’ 32.7%, ‘낮다’ 1.8%

* ‘매우 높다’ 20.2%, ‘다소 높다’ 45.2%, ‘보통이다’ 32.7%, ‘다소 낮다’ 1.8%, ‘매우 낮다’ 0.0%

**<표 2> 최근 4년 (2018~2021) 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 평가**

(단위 : %)

| 구분 | | 높다 | 매우 높다 | 다소 높다 | 보통이다 | 낮다 | 다소 낮다 | 매우 낮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73.7 | 29.4 | 44.3 | 24.3 | 2.0 | 1.9 | 0.1 |
| 가입유형 | 직장가입자 | 75.3 | 27.6 | 47.8 | 23.3 | 1.4 | 1.2 | 0.2 |
| | 지역가입자 | 76.4 | 37.5 | 38.8 | 20.4 | 3.2 | 3.2 | - |
| | 피부양자 | 65.5 | 20.2 | 45.2 | 32.7 | 1.8 | 1.8 | - |

## 3 2022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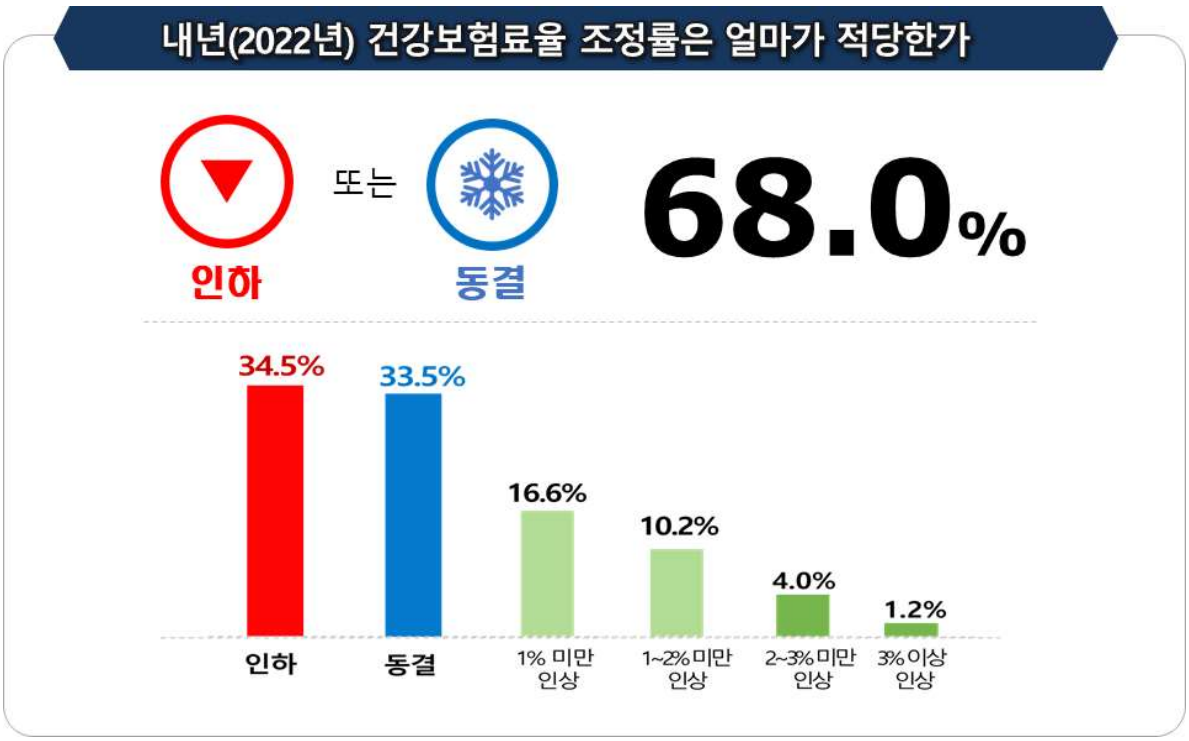
▸ 가입자의 68.0%, '인하 또는 동결' 희망

□ 2022년 적용 건강보험료율의 적정 조정률(구간)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68.0%가 '인하 또는 동결'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됨.

○ 2022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4.5%가 '인하'를, 33.5%가 '동결'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보험료율을 '인상'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인상률에 대해서는 '1% 미만' 16.6%, '1~2% 미만' 10.2%, '2~3% 미만' 4.0% 순이었으며,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운영 목표인 '3% 이상 인상'은 가장 적은 1.2%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.

**[그림 3] 2022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(구간)**



□ **(가입유형별) 2022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67.2%, 지역가입자의 70.9%가 '인하 또는 동결'을 요구한 반면, 정부 계획에 따른 '3% 이상 인상'을 응답한 비율은 각각 1.0%, 1.6%에 불과**

○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인상률에 대해 '동결' 34.2%, '인하' 33.0% 순이었으며, 인상하는 경우 '1% 미만 인상' 18.4%, '1~2% 미만 인상' 10.5%, '2~3% 미만 인상' 2.9%, '3% 이상 인상' 1.0%로 나타남.

○ 지역가입자의 경우 '인하' 40.8%, '동결' 30.1% 순이었으며, 인상하는 경우 '1% 미만 인상' 12.9%, '1~2%미만 인상' 10.0%, '2~3%미만 인상' 4.5%, '3% 이상 인상' 1.6%로 나타남.

○ 피부양자는 '동결' 38.1%, '인하' 26.8% 순이었으며, 인상하는 경우 '1% 미만 인상' 17.3% '1~2% 미만 인상' 10.1%, '2~3% 미만 인상' 6.5%, '3% 이상 인상' 1.2%로 나타남.

**<표 3> 2022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조정률 [구간]**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인하 또는 동결 | 인하 | 동결 | +1% 미만 | +1~2% 미만 | +2~3% 미만 | +3%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68.0 | 34.5 | 33.5 | 16.6 | 10.2 | 4.0 | 1.2 |
| 가입유형 | 직장가입자 | 67.2 | 33.0 | 34.2 | 18.4 | 10.5 | 2.9 | 1.0 |
| | 지역가입자 | 70.9 | 40.8 | 30.1 | 12.9 | 10.0 | 4.5 | 1.6 |
| | 피부양자 | 64.9 | 26.8 | 38.1 | 17.3 | 10.1 | 6.5 | 1.2 |

## 4 향후 건강보험 재정 전망

▸ 악화 49.5% > 보통 36.4% > 개선 14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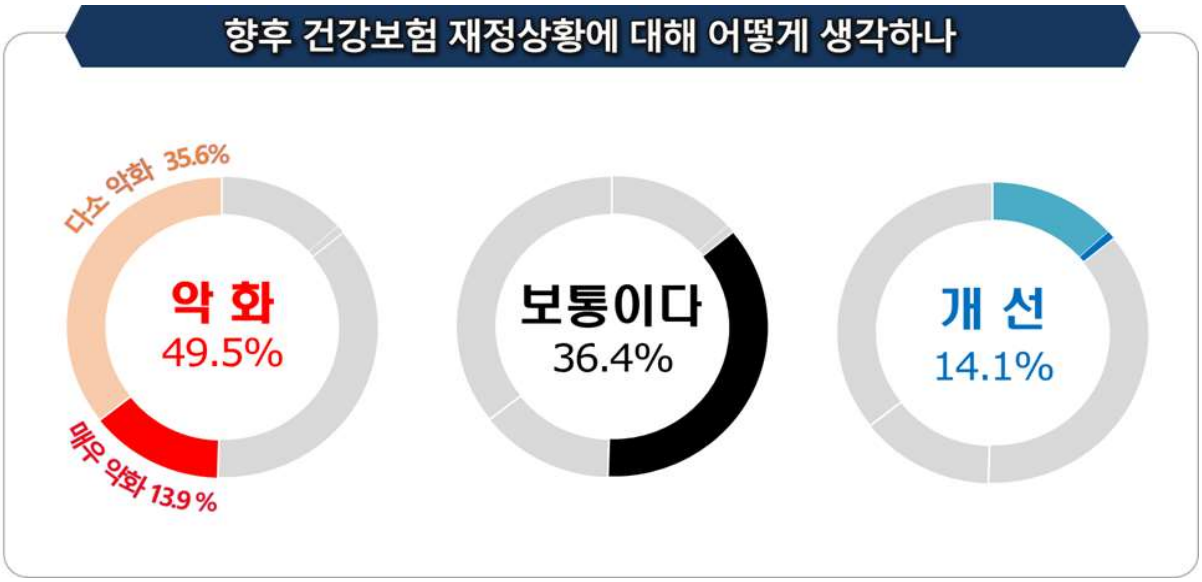
□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*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49.5%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이 더 '악화'될 것으로 우려

*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'18년 1,778억원, '19년 2.8조원, '20년 3,531억원이었으며, 이로 인해 누적적립금은 '17년 20.8조원에서 '20년 17.4조원으로 감소

○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해 '매우 악화' 13.9%, '다소 악화' 35.6% 등 전체 응답자의 49.5%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

○ 그 외 '보통이다'는 응답은 36.4%였으며, '약간 개선' 13.3%, '매우 개선' 0.8% 등 '개선'을 전망한 응답자는 14.1%에 불과

**[그림 4] 건강보험 재정 전망**




□ (가입유형별)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49.3%, 지역가입자의 49.5%가 '악화'될 것으로 우려

○ 직장가입자의 경우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해 ‘악화’ 49.3%, ‘보통’ 35.1%, ‘개선’ 15.5% 순으로 응답

* '매우 악화' 14.2%, '다소 악화' 35.1%, '보통' 35.1%, '다소 개선' 14.2%, '매우 개선' 1.4%

○ 지역가입자의 경우 ‘악화’ 49.5%, ‘보통’ 37.5%, ‘개선’ 12.9%

* '매우 악화' 14.9%, '다소 악화' 34.6%, '보통' 37.5%, '다소 개선' 12.6%, '매우 개선' 0.3%

○ 피부양자는 ‘악화’ 50.6%, ‘보통’ 38.1%, ‘개선’ 11.3%

* '매우 악화' 11.9%, '다소 악화' 38.7%, '보통' 38.1%, '다소 개선' 11.3%, '매우 개선' 0.0%

## <표 4> 향후 건강보험 재정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악화 | 매우 악화 | 다소 악화 | 보통이다 | 개선 | 다소 개선 | 매우 개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49.5 | 13.9 | 35.6 | 36.4 | 14.1 | 13.3 | 0.8 |
| 가입 유형 | 직장가입자 | 49.3 | 14.2 | 35.1 | 35.1 | 15.5 | 14.2 | 1.4 |
| | 지역가입자 | 49.5 | 14.9 | 34.6 | 37.5 | 12.9 | 12.6 | 0.3 |
| | 피부양자 | 50.6 | 11.9 | 38.7 | 38.1 | 11.3 | 11.3 | - |

## <참고> 2017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 상황

(단위 : 억원)

| 구분 |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수입 | | 579,990 | 621,159 | 680,643 | 734,185 |
| 지출 | | 572,913 | 622,937 | 708,886 | 737,716 |
| 수지 | 당기수지 | 7,077 | -1,778 | -28,243 | -3,531 |
| | 누적수지 | 207,733 | 205,955 | 177,712 | 174,181 |

## 5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(8%)을 높이는 법 개정

▸ **반대 55.1% > 잘 모름 30.7% > 찬성 14.2%**

**※ 법 개정 찬성 시 수용가능한 건강보험료율 상한 : '8~9% 미만' 40.1%**

□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(現 소득의 8%)*을 높이는 법 개정**에 대해 응답자 과반(55.1%)이 '반대'하는 것으로 조사됨.

* [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]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 2021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.86%이고,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매년 3.2%씩 인상할 경우 2026년에는 법정 상한 8.0%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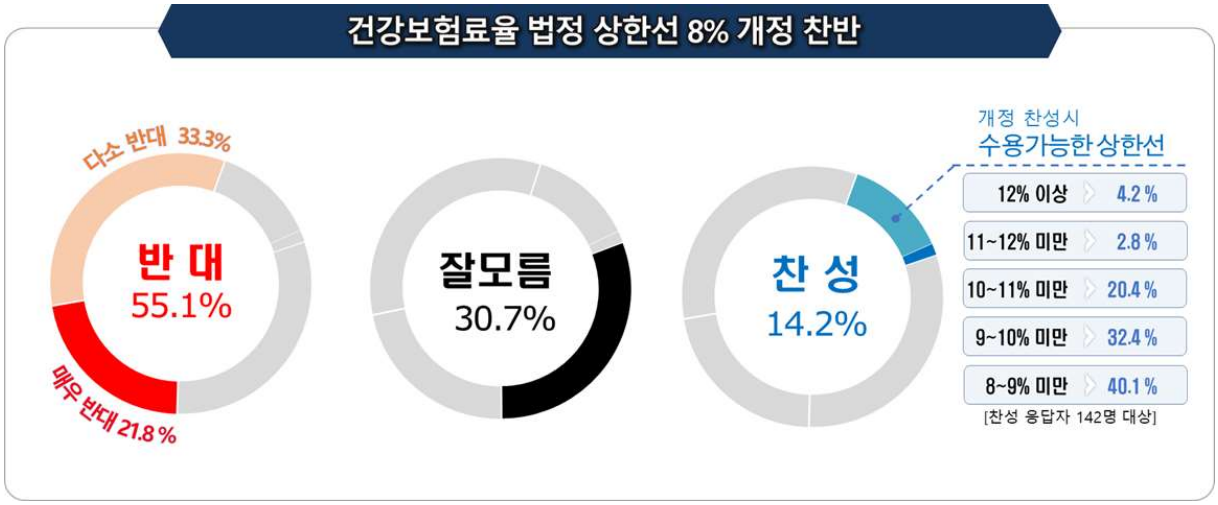
○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해 '매우 반대' 21.8%, '다소 반대' 33.3%로, 전체 응답자의 55.1%가 '반대' 응답

○ 법 개정에 대해 '잘 모르겠다' 30.7%, '찬성' 응답은 14.2%에 불과

- '찬성' 응답 중 수용가능한 상한은 '8~9% 미만'이 40.1%로 가장 많음.

  * '8~9% 미만' 40.1%, '9~10% 미만' 32.4%, '10~11% 미만' 20.4%, '11~12% 미만' 2.8%, '12% 이상' 4.2%

**[그림 5]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**



□ (가입유형별) 보험료율 상한(現 소득의 8%)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해 직장가입자 59.0%, 지역가입자 50.5%, 피부양자 53.0%가 '반대' 응답

○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에 대해 '반대' 59.0%, '잘 모르겠다' 27.2%, '찬성' 13.8%

* '매우 반대' 23.3%, '다소 반대' 35.7%, '다소 찬성' 12.4%, '매우 찬성' 1.4%, '잘 모르겠다' 27.2%

○ 지역가입자의 경우 '반대' 50.5%, '잘 모르겠다' 34.6%, '찬성' 14.9%

* '매우 반대' 23.6%, '다소 반대' 26.9%, '다소 찬성' 13.9%, '매우 찬성' 1.0%, '잘 모르겠다' 34.6%

○ 피부양자의 경우 '반대' 53.0%, '잘 모르겠다' 32.7%, '찬성' 14.3%

* '매우 반대' 13.7%, '다소 반대' 39.3%, '다소 찬성' 11.9%, '매우 찬성' 2.4%, '잘 모르겠다' 32.7%

**<표 5>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**

(단위 : %)

| 구분 | | 반대 | 매우 반대 | 다소 반대 | 찬성 | 다소 찬성 | 매우 찬성 | 잘 모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55.1 | 21.8 | 33.3 | 14.2 | 12.8 | 1.4 | 30.7 |
| 가입 유형 | 직장가입자 | 59.0 | 23.3 | 35.7 | 13.8 | 12.4 | 1.4 | 27.2 |
| | 지역가입자 | 50.5 | 23.6 | 26.9 | 14.9 | 13.9 | 1.0 | 34.6 |
| | 피부양자 | 53.0 | 13.7 | 39.3 | 14.3 | 11.9 | 2.4 | 32.7 |

# 6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

## ▸ 건강보험 혜택, 보험료율 부담 모두 "현 수준 유지" 가장 선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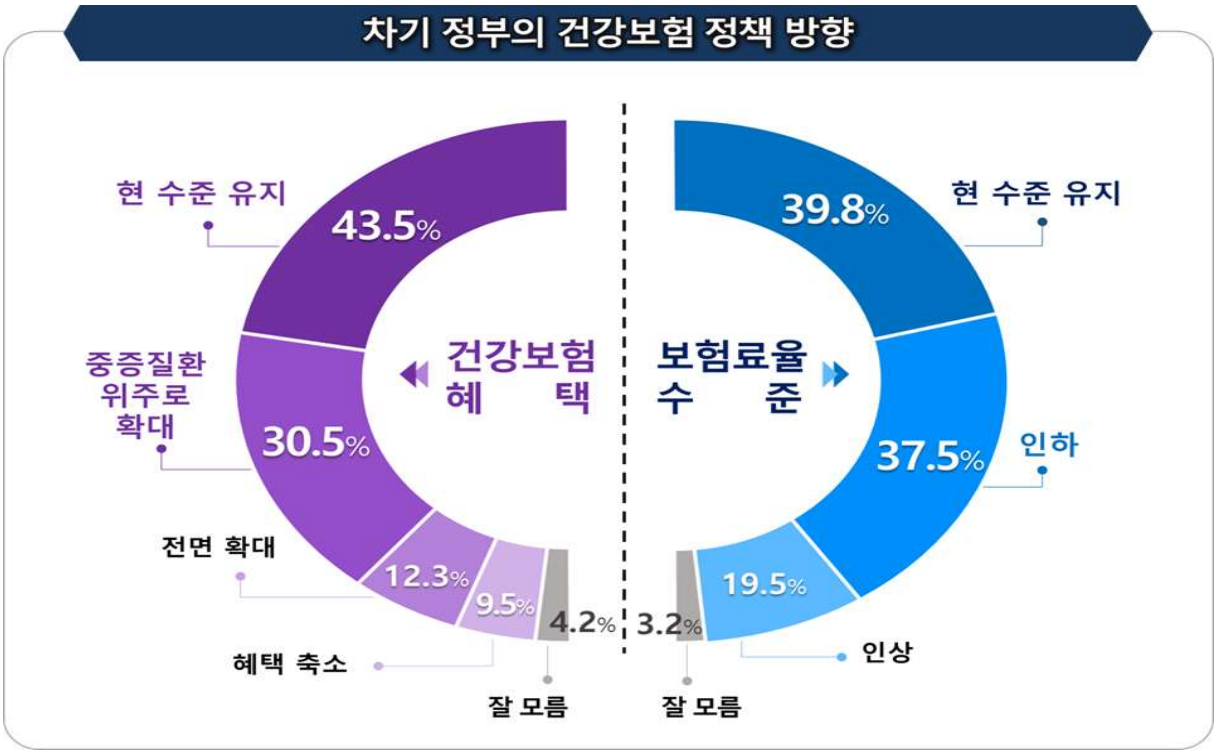
□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, 보험료율 모두 '현 수준 유지'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43.5%, 39.8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※ 現 정부 건강보험정책(보장성 강화대책)은 **건강보험 혜택을 '전면 확대'**하여 **2023년까지 보장률을 70%까지 높이고,** 재원은 **보험료율을 매년 3.2%씩 인상**하여 조달

○ **(건강보험 혜택)** '현 수준 유지' 43.5%, '중증질환 중심 확대' 30.5%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, 現 보장성 강화대책이 목표로 하는 '전면 확대'는 12.3%에 불과

○ **(보험료율)** 오차범위 내 '현 수준 유지' 39.8%, '인하' 37.5% 순으로 나타난 반면, '인상'은 19.5%에 불과

**[그림 6]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과 건강보험료율 관련 정책 방향**



□ (가입유형별) **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, 보험료율 모두 '현 수준 유지'를 선호했으나,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은 '현 수준 유지', 보험료율은 '인하'를 가장 선호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.**

○ **(건강보험 혜택)** 직장가입자(47.4%), 지역가입자(37.5%), 피부양자(43.5%) 모두 '현 수준 유지'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직장가입자의 경우 '현 수준 유지' 47.4%, '중증질환 위주 확대' 29.5%, '전면 확대' 11.3% '축소' 9.9%, '잘 모르겠다' 1.9%로 응답

- 지역가입자의 경우 '현 수준 유지' 37.5%, '중증질환 위주 확대' 31.4%, '전면 확대' 13.6%, '축소' 10.4%, '잘 모르겠다' 7.1%로 응답

- 피부양자는 '현 수준 유지' 43.5%, '중증질환 위주 확대' 31.0%, '전면 확대' 13.7%, '축소' 6.5%, '잘 모르겠다' 5.4%

○ **(보험료율)** 직장가입자(41.7%), 피부양자(46.4%)는 '현 수준 유지'를, 지역가입자(43.7%)는 '인하'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직장가입자의 경우 '현 수준 유지' 41.7%, '인하' 37.9%, '인상' 18.6%, '잘 모르겠다' 1.7% 순

  * '대폭 인상' 1.6%, '소폭 인상' 17.1%, '현 수준 유지' 41.7%, '소폭 인하' 28.2%, '대폭 인하' 9.7%, '잘 모르겠다' 1.7%

- 지역가입자의 경우 '인하' 43.7%, '현 수준 유지' 32.4%, '인상' 19.4%, '잘 모르겠다' 4.5% 순

  * '대폭 인상' 1.3%, '소폭 인상' 18.1%, '현 수준 유지' 32.4%, '소폭 인하' 28.8%, '대폭 인하' 14.9%, '잘 모르겠다' 4.5%

- 한편, 피부양자의 경우 ‘현 수준 유지’ 46.4%, ‘인하’ 26.8%, ‘인상’ 22.0%, ‘잘 모르겠다’ 4.8% 응답

  * ‘대폭 인상’ 0.0%, ‘소폭 인상’ 22.0%, ‘현 수준 유지’ 46.4%, ‘소폭 인하’ 20.8%, ‘대폭 인하’ 6.0%, ‘잘 모르겠다’ 4.8%

## <표 6>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관련 정책 방향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전면 확대 | 중증질환 위주 확대 | 현행 유지 | 혜택 축소 | 잘 모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12.3 | 30.5 | 43.5 | 9.5 | 4.2 |
| 가입유형 | 직장 | 11.3 | 29.5 | 47.4 | 9.9 | 1.9 |
| | 지역 | 13.6 | 31.4 | 37.5 | 10.4 | 7.1 |
| | 피부양자 | 13.7 | 31.0 | 43.5 | 6.5 | 5.4 |

## <표 7>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관련 정책 방향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인상 | 대폭 인상 | 소폭 인상 | 현 수준 유지 | 인하 | 소폭 인하 | 대폭 인하 | 잘 모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19.5 | 1.2 | 18.3 | 39.8 | 37.5 | 26.9 | 10.6 | 3.2 |
| 가입유형 | 직장 | 18.6 | 1.6 | 17.1 | 41.7 | 37.9 | 28.2 | 9.7 | 1.7 |
| | 지역 | 19.4 | 1.3 | 18.1 | 32.4 | 43.7 | 28.8 | 14.9 | 4.5 |
| | 피부양자 | 22.0 | - | 22.0 | 46.4 | 26.8 | 20.8 | 6.0 | 4.8 |

# 7 상병수당제도 도입 찬반 여부

▸ [제도 도입] 반대 37.3%, 찬성 36.1%

▸ [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제도 실시] 반대 54.8% > 찬성 21.9%

□ 상병수당* 도입에 대해서는 오차범위(±3.1%) 내에서 '반대' 37.3%, '찬성' 36.1%로 나타났으나,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'반대' 54.8%, '찬성' 21.9%로 조사됨.

*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·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상실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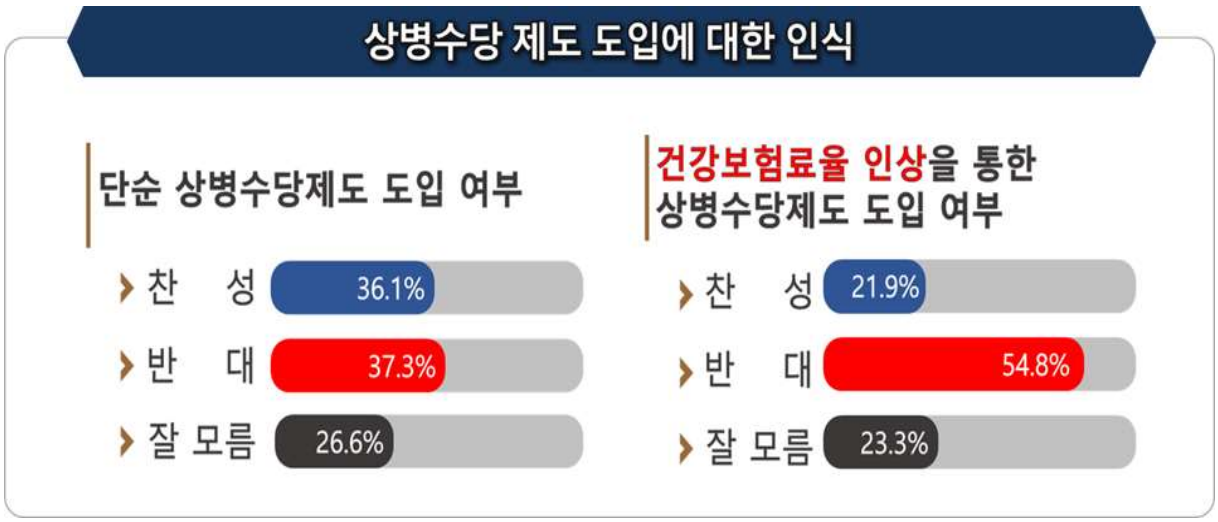
○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오차범위(± 3.1%) 내에서 '반대'가 37.3%로, '찬성'(36.1%)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* '반대' 37.3%, '찬성' 36.1%, '잘 모르겠다' 26.6%

○ 반면,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상병수당 재원을 조달할 경우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'반대'한다는 응답이 54.8%에 달함.

* '반대' 54.8%, '찬성' 21.9%, '잘 모르겠다' 23.3%

**[그림 7] 상병수당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**



□ (가입유형별) **직장가입자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나, 지역가입자의 경우 제도 도입 자체는 찬성하나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제도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**

○ **(상병수당 도입)** 직장가입자의 경우 '반대' 응답이 41.4%로 가장 높았으나, 지역가입자는 '찬성' 응답이 37.9%로 가장 높음.

- 직장가입자는 '반대' 41.4%, '찬성' 37.1%, '잘 모르겠다' 21.6% 순인 반면, 지역가입자는 '찬성' 37.9%, '반대' 34.3%, '잘 모르겠다' 27.8% 순
  ※ 피부양자의 경우 '잘 모르겠다' 37.5% '반대' 32.1%, '찬성' 30.4% 순

○ **(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상병수당 실시)**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제도 도입에 '반대'한다는 응답이 각각 57.7%, 53.1%로 가장 높음.

- 직장가입자의 경우 '반대' 57.7%, '찬성' 23.1%, '잘 모르겠다' 19.2%, 지역가입자도 '반대' 53.1%, '찬성' 21.7%, '잘 모르겠다' 25.2% 순
  ※ 피부양자는 '반대' 51.2%, '잘 모르겠다' 29.8% '찬성' 19.0% 순으로, '반대' 의견이 가장 많음.

**<표 8>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**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제도 도입 | | |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제도 도입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찬 성 | 반 대 | 잘 모름 | 찬 성 | 반 대 | 잘 모름 |
| 전체 | | 36.1 | 37.3 | 26.6 | 21.9 | 54.8 | 23.3 |
| 가입 유형 | 직장가입자 | 37.1 | 41.4 | 21.6 | 23.1 | 57.7 | 19.2 |
| | 지역가입자 | 37.9 | 34.3 | 27.8 | 21.7 | 53.1 | 25.2 |
| | 피부양자 | 30.4 | 32.1 | 37.5 | 19.0 | 51.2 | 29.8 |

# 조사개요

## 1. 조사목적

본 조사는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 및 건강보험제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보험료율 조정과 건강보험정책 방향 등 정책과제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.

## 2. 조사대상 및 방식

○ 조사대상 :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
○ 표 본 수 : 1,000개
○ 조사방식 : 모바일, 웹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
○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 ± 3.1%p
○ 조사기간 : 2021. 5. 24. ~ 6. 2. (10일간)
○ 수행기관 : ㈜나우앤퓨처

## 4. 주요 조사항목

○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,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평가
○ 2022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적정 인상률(구간)
○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(8%) 개정
○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
○ 상병수당제도 도입 찬반 여부 등

## 5. 응답자 개요

| 구분 | | 응답자 | |
|---|---|---|---|
| 전체 | | 1,000명 | (100.0%) |
| 성별 | 남 | 512명 | (51.2%) |
| | 녀 | 488명 | (48.8%) |
| 가입유형별 | 직장가입자 | 515명 | (51.5%) |
| | 지역가입자 | 309명 | (30.9%) |
| | 피부양자 | 168명 | (16.8%) |
| | 임의계속가입자* | 8명 | (0.8%) |

*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(3년)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자